

‘장하다! 무주의 아들·딸’

동계체전 전북 바이애슬론 선수단
입상 격려회 무주서 개최
최운아 선수에 트로피 전달

전북동계체전 전북 바이애슬론 선수단 입상 격려회가 20일 무주종합수련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바이애슬론연맹 황인홍 회장(무주군수)을 비롯한 임원들과 대의원들, 무주군의회 유승렬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 내빈, 그리고 바이애슬론 지도자들과 선수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동계체전 개인경기와 스프린트, 계주,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프리종목 4관왕을 비롯해 역대 전북 선수단 최초로 최우수선수로 선정(한국체육기자연맹)된 최운아 선수(무주고 2년)에게 트로피가 전달됐으며 33명의 입상 선수들과 무주군청팀 김호엽 감독을 비롯한 10명의 바이애슬론 종목 지도자들과 스키 종목의 구천호 백승주 감독에 대한



격려가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황인홍 회장은(무주군수)은 “이 선수들이 전북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빛낼 아들, 딸임을 항상 기억해 달라”며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날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맹과 군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과 뒷받침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했던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을 비롯한 도체육회 소속 선수단, 그리고 무주와 무풍, 안성, 설천, 부남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선수 등 33명이 48개의 메달을 목에 걸면서 전북이 21년 연속 종합 4위(금 21, 은 21, 동21)를 차지하고 바이애슬론 종목은 10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금15, 은 14, 동 11)하는데 주역이 됐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군청팀에 4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전북바이애슬론연맹에서는 1억2000여 만 원을 투입, 선수들의 용품 및 피복, 국내의 전지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원주중 배드민턴부, 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정상 차지

원주중학교 배드민턴부(감독 윤미화, 코치 전오뜸)가 2019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남자 중학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전 둔산중을 3-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 전남 화순중을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남자중학부 단체전에는 모두 28팀이 참가했는데, 16강에서 웅상중을 3-0으로 이겼고, 8강에서는 전대사대부중을 3-1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이 경기에서 1경기만 유일하게 패배할 정도로 이번 대회에서 완벽한 승리를 차지했다. 원주중은 중고연맹회장기에서 김태림과 임관희, 박승민, 유준서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첫 남자중학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였고, 또한 복식에서 3학년부 우승(김태림, 박승민), 단식에서는 3학년부 우승(김태림), 2학년부 준우승(정우빈)이라는 쾌거를 거둬 그 기쁨은 더욱더 크다. 조계북 교장은 “선수들의 땀과 윤미화 감독과 전오뜸 코치의 훌륭한 지도로 얻어낸 결과이기에 매우 자랑스럽다.”며 배드민턴부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북체육회, 전북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미화 감독은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 학부모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의욕이 넘치는 어린 선수들의 땀의 결실”이라며 모든 분들의 응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



장계면 농가주부모임, 어르신 떡국나눔 행사

장계면 농가주부모임(회장 고복자)은 20일 장계 대표경로당에서 김재홍 명장, 고복자 회장, 회원 등 관계자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떡국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떡국나눔 행사는 회원들이 직접 떡국을 만들어 무료경로식당이용 어르신 100여명에게 대접했다. 고복자 회장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맛있는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된 장계면 농가주부모임은 폐비닐·농약병 수거를 농촌정화활동 및 지역봉사활동에 동참하는 등 농촌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경찰, 직원 상반기 특별 사격훈련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19~20일 2일간 경찰서 지하사격장에서 외근 경찰관 및 내근 중 회랑자 포함 총 21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훈련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사격술과 총기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탄약 유풍상태와 부정사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비롯한 사격안전교육과 감찰활동을 강화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서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군산서초등학교(교장 이일령)는 20일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학부모 교육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청탁 방지법 및 선행학습 금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이다. 이일령 교장은 “사람들이 불평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더 배려하게 되고, 모든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급식을 체험함으로써 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한편 군산서초등학교는 원도심학교로서 스물스물세, 군산의재발견, 숲 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수가 2017년 73명, 2018년 93명, 올해 123명으로 꾸준한 학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 특별안보사진전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여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특별안보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2년 6월29일 제2연평도해전,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어뢰로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포격 등 55명의 서해수호용사의 활약을 담은 12점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호국원 관계자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은 단순히 기념행사만이 아닌 전북119안전체험관을 찾는 유치원, 초·중·고학생, 일반체험객에게 「안전과 안보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무주경찰, 노인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교육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풍 노인복지관 및 평촌마을 등 18개소를 찾아가 어르신 상대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무단횡단 및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미착용 등 특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운기 및 트랙터 등 운행 차량에 대해 반사지를 부착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경찰, 조직 내 협력·근무여건 개선·고충처리 총력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직원들 간 소통을 통해 조직 내 협력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20일 열린 회의에서는 참여를 희망한 경찰·행정·주무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못된 관행, 불필요한 업무,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환 경찰서장은 “상·하급자간 소통과 실무자들의 고충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근본적인 경찰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활용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